

“가진건 없어도 나눌건 많아요”

청원 석문사 혜전 스님의 농촌생활 이야기



11월 26일 혜전 스님이 정성껏 담긴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는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촌동네’다. 가좌리에서도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가정집 같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석문사다. 이런 절을 소위 인법당(因法堂)이라고 하는데, 앞뿔 보기에 도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다.

11월 26일 오전, 석문사 마당에 주지 혜전 스님과 10여명의 보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김장을 담고 있다. 마을의 독거 어르신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날 담글 김장은 배추 360포기, “맛있네요, 역시 우리 보살님들 음식솜씨

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혜전 스님이 분위기를 띄우자, 신도들은 “이렇게 다 퍼주고 스님은 뭘 먹고 사시려고요” 하며 불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신도들 입가에 흐르는 미소로 보아 말 속에 파스함이 배어 있음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석문사 신도들은 혜전 스님을 두고 “부처님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남 주는 데는 ‘일등’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면 내 일처럼 나서고, 마을 어르신 모시는 데는 자식보다 더 효자고, 아픈 사람은 눈 뜨고 못 보고 마을 애경사에는 결코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하다. 작년에 석문사에 온 혜전 스님은 오자마자 청원군민 초청 경로잔치부터 열었다. 봄 가을 두 차례 열었으니 올 가을까지 네 번째다. 이것도 모자라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경로당에는 기쁨을 보내 준다. 마을 어르신들이 절에서 마음껏 공양할 수 있도록 반찬에도 은근 신경을 다 쓴다.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비도 부담한다. 먹고살기가 어렵다보니 병원비를 받아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근 김장 배추도 혜전 스님의 ‘팬’인 양회필거사(52·신탄진 철도정비창 근무)가 주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다. “대단한 분이여, 말로 어떻게 다해...”(한덕현·79, 가좌리 4반 반장)

“남이 못하는 일을 많이 해. 참 고마운 분이여.”(원창식·66, 가좌리 3반)

점심공양을 하던 마을 어르신이 기자에 게 귤속말로 속삭인다.

김월운(66·가좌리 관음화55·가좌리 만덕화54·청주시 북대동) 수월행(49·대전) 보살 등 김장을 하던 신도들도 혜전 스

인법당서 기도하며 주민들과 ‘한살림’ 김장김치 360포기 어려운 이웃에 경로잔치·병원비 등 물심양면 도와

래도 스님은 개의치 않는다. 교통사고로 3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병실에서 만난 한 보살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출가 전 모아놓았던 사재도 어느덧 이렇게 다 써버렸다.

최근에는 중풍을 앓는 한 어르신이 울퉁패인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으로 모신 뒤, 연로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놓아 달라고 면에 요청을 했다.

이런 자비행이 알려지면서 혜전 스님의 ‘팬’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이날 담

금 자랑에 힘이 마른다. “아니에요. 뭐 한 게 있다고...” 말꼬리를 감추는 혜전 스님에게 조르듯이 그렇게 ‘퍼 주는’ 이유를 물었다.

“몸이 약해 부모님 속 많이 찍어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어르신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어르신들 모두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봉양하고 싶었어요. 돕는다는 생각이 안 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을 식구처럼 살고, 그 사람들이 부처님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글·사진/청원=한명우 기자

차와 명상이 만나 새로운 수행으로 차훈명상문화원 광주에 개원, 계간지도 발행



차와 명상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차훈명상문화원이 11월 25일 광주에 개설했다.

광주 상무지구에 자리한 차훈명상문화원(원장 선해) 개원식에는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 스님, 한국전통양생문화원장 정암 스님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원 개원과 함께 <차훈명상>을 출간한 선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차훈명상은 차일의 훈기를 들며 마시거나 몸에 써서서 전신기혈을 조절하고 호흡과 명상으로 신심 건강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차훈명상은 한국전통양생문화원장 정암 스님이 곤륜산 수행자들로부터 시작된 차훈(茶熏)과 다도, 태극권, 요가 등 중앙전통 수행을 체계화한 새로운 수행법. 문화원 개원과 함께 계간지 <차와 명상>을 발간하는 등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게 됐다. 한편 차훈명상문화원은 일반 수련교육과 지도자 교육과정 수련생을 모집한다. 0621375-2773 이준엽 기자

“불자·예술인 금지 모두 갖출 것” 충북불자예술인협회 청주 관음사서 창립법회



연극·음악·미술·문학·영화 등 충북의 문화예술분야 불자 120명이 ‘충북불자예술인협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청주 관음사 전불전에서 창립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주불교 원로 원봉 스님

(보현사 주지),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각의 스님과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한 충북불자예술인협회는 앞으로 정기법회를 갖는 등의 신명활동을 하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을 개최해 불교문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불교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불교행사를 지원하고, 회원 각자의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지도법사사 관음사 주지인 현진 스님이 말했다.

초대회장을 맡은 국악인 지순에게는 “불자라는 긍지를 갖고 청주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동대문 상가에 첫 불자회 결성

조계사 인로왕법등, 신명화시장에 법당 개원

매월 2회 법회 개최 예정

동대문시장 상가 첫 불자회가 탄생했다.

11월 28일 새벽 4시 30분, ‘신명화시장불자회’(회장 김봉석, 이하 신명화) 창립 및 불화 점안 법회가 서울 중구 신명동 신명화시장 강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사 노전 능허 스님과 포교국장 재경 스님, 신도회장을 비롯한 상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신명화는 조계사 ‘인로왕법등’ 회원 가운데 신명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몇몇 신도들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대문시장 인근상가는 수십 년 전부터 교회사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 타종교인들의 교류와 신앙 활동이 왕성한 곳. 신명화시장 상가도 매주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와 강당에서 기도를 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늘 안타까워 하던 불자상인들이 먼저 조계사 인로왕

법등에 불자회 창립지원을 요청. 이날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신명화의 결성이 확정된 후, 1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전에 첫 법회를 알리는 안내장을 각 점포로 돌렸다. 신명화시장 1200여 점포 상인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불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른 시간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예배식 후 60여명의 신도가 강당을 가득 메우자 법회를 준비한 스님들과 신도회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

신명화 총무 이금강지 보살은 “조계사 스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신명화시장 불자들도 타 종교인들 부럽지 않게 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능허 스님은 “앞으로 신명화시장 상인들 뿐 아니라 주변의 평화시장이나 시간이 없어서 절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매월 법회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조계사 포교국장 재경 스님(가운데)과 능허 스님(맨 오른쪽)을 비롯한 불자들이 11월 28일 열린 창립법회에서 법안심경을 발독하고 있다.

‘작은손길’ 외국인노동자 병원비 지원 호소 밀린씨 16주 화상에 치료비 없어 발만 동동

경기도 부천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 을 벌이고 있는 불교인권단체 작은손길대 표 김광하이 화재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작은손길이 돕고 있는 사람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밀린(42세, 밀린씨는 최근 시흥의 한 휘발유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다 전치 16주의 화상을 입고 구로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그러나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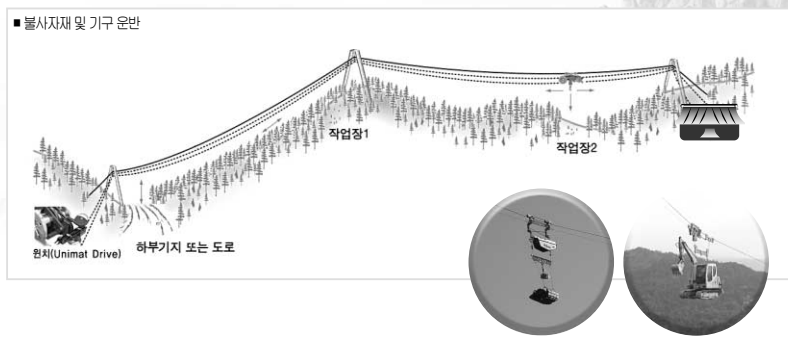
다. 더 큰 문제는 밀린씨와 함께 부상을 입은 난다(49세)가 11월 28일 사망하면서 생긴 병원비 4000만원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작은손길 김광하이 대표는 “두 사람은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도 못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0321684-0244 국민은행: 665901-01-326055 예금주 이란 유철주 기자

깊은 산속, 사찰 불사 운송비 걱정 끝!

자연 훼손 없이 자재, 작업기구 운송 - 기존 운송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다리가 없는 강 건너 등 운송비용 부담으로 불사를 하지 못했던 사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불사 자재, 기구등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 생 산 성 : 최고의 운반속도(10m/sec), 최고의 운반중량(6톤/회), 신속한 설치, 해체(설치 3주 이내, 해체 10일 이내), 연속운전 가능
- 안 전 성 : 완벽한 브레이크시스템(3중 시스템), 간편한 조작기능, 정밀한 운전, 단순한 설비, 80년 이상의 사용실적
- 범 용 성 : 산악, 험준한 지형 등 지형여건에 구애받지 않음. 대규모 사찰 산속 및 고속 불사
- 환경보호 : 어느 지형조건에서도 최적 설치(환경훼손 최소화), 지형에 적합한 설치로 산림보호 최우선,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설치

아직도, 사찰 필수품을 등짐으로 운반하십니까?

사찰에서 항상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설치로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자동 운송합니다

도로로 운반하던 사찰 필수품(생활용품, 난방연료, 스님 용품 등)을 한번설치한 기구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사찰까지 운반합니다. 자연훼손 및 민원 없이 설치 가능하며 수일이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대상 : 도로가 없어 도로로 물품을 운반하는 산속 사찰
- 용 도 : 사찰 필수품 등 1회 200, 400, 500kg이하의 경량물 자동 운송
- 특 정 : 운송장비 자체의 구동장치에 의한 이동, 한번 설치로 영구사용, 간단한 설치 및 해체 가능, 수일이내 설치가능

스위스 워센정비 80년 노하우로 한성에스티가 모든 안전 및 책임을 보증합니다 문의주시면 성실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며, 불사관련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